

새하얀 세상에 자신은 혼자 내버려져 있었다. 하늘에서는 큼지막한 눈이 쏟아져 내렸고, 제 몸을 덮으며 조용히 쌓여갔다. 드넓은 설원 위에 그의 몸은 지독히 차갑거나, 또 불덩이처럼 뜨거웠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를 저주할 힘도, 구해달라고 소리칠 힘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저 아팠다, 완전히 동사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정도야 뻔히 알지만, 구태여 생을 위해 애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귓가에는 이명과도 같은 외침이 아직 선명했다.

‘이 악마의 자식, 얼른 죽어!’

제 몸을 문밖으로 밀어 넘어뜨리던, 저보다 어린 동생.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던 자신의 아버지.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 본 적은 없으나, 그런 소리와 함께 끝내 버려지고 나니 이제는 모두 자신의 잘못 같다. 아나킨은 멍하니 누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 모든 것이 멀고, 아득하기만 하고, 저는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나, 하는 생각이 추위와 함께 뺨속을 에웠다. 태어난 것이 죄였나? 숨이 거칠고 뜨거워졌다. 그러나 끝끝내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생을 마감한다면, 천국에 갈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고통은 끝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밤.

누군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이름이라기보다, 아이야, 와 같은 말에 가까웠다. 목소리가 잠들어 있던 그의 의식을 깨웠기에 마지

막 발악처럼 눈꺼풀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 시야는 느리게 밝아졌고, 다시 어두워지기를 반복한다.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몇 점의 눈송이가 눈꺼풀을 간지럽힌다…. 흐린 시야 속으로, 그는 어떤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갈색의 로브.

그리고 저의 몸을 안아 올리던, 희고 부드러운 손.

"정신이 좀 들어요?"

아나킨이 눈을 떴을 때, 머리를 양 갈래로 땀아 내린 소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소카, 하고 제 목에서는 앓다 일어난 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 목소리는 깊고 중후했기에, 아나킨은 자신이 더는 소년 이 아님을 알았다.

"왜 그래요?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마냥,"

"...꿈을 꿔어."

스승님을 처음 만난 날의. 아나킨이 뒷말을 삼키며 그리 이야기했다. 얼른 정신 차리고 불 켜는 거나 좀 도와줘요! 아소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그를 타박했다. 이야..., 그래도 나 환자인데, 하는 아나킨의 볼멘소리는 먹히지 않았다. 그와 동행하던 소녀는 몇 번의 우열 곡절 끝에 그의 몸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으므로, 정신을 잃은 것쯤은 아픈 것으로 치지도 않는가 싶었다.

"여기는 어디야?"

"동굴이에요. 갑자기 기절한 당신을, 그대로 버리고 돌아갈 수도 없

는 노릇이니까.”

흔한 이야기였다. 누군가 희망은 절망의 끝에서 솟아난다고 했던가, 그가 완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아버리기 전에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오비완 케노비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게 다였다. 그는 세상을 떠도는 중이었고, 가끔 저 같은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펴주며 가르침을 주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한다고 했다. 아나킨은 처음에 그를 믿지 않았지만,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물빛 눈동자를 떠올리면, 가끔은 가슴이 간질간질해져서 눈을 돌렸다. 그러다 모진 말을 내뱉었고, 언제 나를 배신할지 두고 보자고, 그런 날이 온다면 내가 당신의 등에 칼을 꽂을 테니 목숨을 소중히 하라며 협박까지 했다. 하지만 늘 돌아오는 것은 부드러운 미소와, 날 죽인다니, 십 년은 이르구나. 하며 너털웃음을 터트리던 모습이었다. 실제로 샌님 같아 보이던 오비완은 강했다. 제 목에 걸린 현상금을 노린 사냥꾼 서넛을 집에 있던 의자로 가볍게 두들겨 패는 것을 보고, 아나킨은 인정해야만 했다. 저 남자가 적어도 자신에게 베풀고 있는 것은, 순수한 호의라고. 제가 그토록 원했던.

“무슨 꿈인지 물어봐도 돼요?”

아나킨이 피워올린 불에 장작을 던져넣으며, 아소카가 물었다. 그녀는 며칠 전에 자신의 마을에 찾아와 사례는 얼마든지 할 테니 숲의 길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이 젊은 청년에 대해 기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반은 호기심이었고, 반은 안타까움. 낯선 사람을 따라간다면 걱정하던 마을 어른들의 말과 달리 누굴 해칠 위인은 못되었다. 적어도 아소카는 그렇게 판단했다. 죽지라도 않으면 다행이었지.

“별건 아니고, 스승님을 처음 만났던 날의 꿈이었어.”

“어떻게 만났는데요?”

흰색 머리에 푸른 빛이 드문드문 섞인 머리카락을 곱게 땋아 내린 소녀의 얼굴은 아직 옛때 보였고, 커다란 두 눈은 흥미를 담고 초롱초롱했다. 이젠 무슨 옛날이야기가 아닌데, 하고 아나킨이 멍쩍게 웃었다. 하지만 아나킨은 작은 아이들에게 약했고, 밤이 물러갈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야.”

아나킨이 다시금 눈꺼풀을 닫을 때는, 멀리서 희미하게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여전히 어둡기만 한 동굴 안에는 모닥불이 꺼져가는 소리와,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씨가 이따금씩 그들의 얼굴을 밝혔다.

“잘 들었어요.”

“…”

“그래도 우리가 같이 길을 떠난 지 사흘… 아니, 일주일이 다 되어가나? 낯선 사람을 따라가고, 구해주기까지 했는데 나를 믿지 못하는 건 섭섭하네요.”

아나킨은 이 여행은 순전히 자신의 취미라고 했지만, 아소카는 믿지 않았다. 고작 취미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그 길의 끝에 ‘눈의 여왕의 성’이 있다면 더더욱. 그건 그녀의 마을에 내려오는 기담이었다. 숲을 따라 나가면, 숲의 건너편에는, 일 년 내내 눈이 내리는 마을이 존재하는데, 그 마을을 건너가면 눈의 여왕의 성이 나온다고.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이는 없다는.

“아나킨, 당신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확신에 찬 말투였다. 아나킨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작은 소녀가 언제부터 그것을 깨달았는지는 몰랐지만, 아나킨은 기억의 저편에서 자신을 혐오하던 어린 동생의 눈빛을 떠올렸다.

“내가 무섭지는 않니?”

“꼭이냐요.”

“...”

“차라리 산짐승을 무서워하는 게 낫겠어요.”

적어도 산짐승보다는 당신이 잘 싸우고, 말도 통하니, 나은 편이죠. 소녀는 그리 말하며 웃었다. 아나킨은 소녀가 더 이것저것 캐물을 줄 알았지만, 아소카는 침묵을 지키며 덤덤한 얼굴로 고쳐앉을 뿐이었다. 마치 그가 원하지 않으면 더 캐묻지 않겠다는 것처럼.

“그날, 눈의 여왕이 나를 찾아온 날..., 나를 대신해서 오비완이 잡혀 갔어.”

“...”

“나는 그를 돌려받기 위해 이 여행을 떠났고.”

아, 또 그런 표정이다. 아소카는 아나킨의 얼굴을 훑쳐보며 그리 생각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트릴 듯 울상이 되어, 그러나 표정은 한껏 부드러워진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푸른 눈동자에는 무한한 애정과 신뢰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며, 아주 소중하고 애뜻한 것을 매만지듯이.

마지막 남은 불씨가 타올랐다가 사그라들었고, 동굴 안으로 서서히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주 낮은 빛이, 보드랍게, 발끝을 천천히 물들이며.

“평범한 감정이 아니죠?”

아소카의 물음에 아나킨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와 닿는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실 때, 꼭 그런 눈이시거든요.”

시선……. 아나킨은 다시금 시선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그가 아주 어릴 적 가족에게서 받은 시선은 그리 좋은 것들이 아니었다. 혐오와 불안으로 질게 잠겨있는 얼굴. 하지만 오비완의 시선은 늘 한결같은 호의로 가득 차 있었다. 아, 그 울렁이는 푸른빛의 눈동자.

그는 어떻게 웃었더라, 하고 떠올리자 얼굴이 붉어진다. 텅치는 저희 마을에 누구와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로 커다라면서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구는 모양새에 아소카가 웃었다.

“오비완은 아나요?”

외사랑이라면 조금 슬플 것 같은데. 하지만 아나킨은 고개를 저었다.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은 눈이 좋아서 겨울이 좋다고 했어. 나는 저주받은 아이라며 내

쫓으라고 할 때, 그는 그런 엉뚱한 대답을 했다. 오비완은 겨울은 추워도 눈이 아름답고, 여름은 더워도 햇살이 아름답다고 했다. 모든 것은 양면성을 지녔단다. 세상에는 반드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단다. 그러니 나는 너를 믿는단다, 하고 나직하게 읊조리는 목소리를, 올곧게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어렸던 아나킨이 그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는 그런 사람이니까.”

몇 번이고 밀어내도 다시 마음을 주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못된 트롤이 살았습니다. 트롤은 심보가 몹시도 고약했는데, 그는 아름다운 것을 비추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고, 추하고 쓸모없는 것을 비추면 그보다 열배는 더 흉해 보이는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에 대한 소문을 들은 괴물들이 거울을 훔쳤고, 그들은 그 거울을 가진 채로 아주 높게 올라가다가 거울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고, 흩어진 파편에는 거울의 특별한 마법의 힘이 담겨져 있었기에, 그 조각은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 그들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자 할 때 파편은 그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지를 잃고 나쁜

행동을 스스로없이 하게 만들었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악마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가장 추운 날 마을에 찾아온다는 눈의 여왕은, 마을에 숨어 사는 악마의 종들을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눈의 여왕 설화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무리 외진 시골아이라고 해도 모르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동화 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 저주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마을에 버림받고 결국 세상에 내쫓기듯 버려진 한 소년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나킨은 그를 오비완, 또는 스승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은근히 자랑하곤 했다. 그는 외사랑이라곤 했으나, 아소카는 오비완의 마음이 단순히 제자를 아끼는 것과는 다른 감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말해봐야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 뻔했기에 목소리를 아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다니.

적어도 아소카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처음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사람이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눈의 여왕에게 잡혀간 사람이 제가 아니고, 제가 아끼는 이들이 아니라서. 그곳에 들어가면 영영 빠져나올 수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런 곳이었다, 눈의 여왕의 성은. 그리고 오비완이, 아나킨을 대신하여 끌려들어 간 곳은.

동정심, 그리고 죄책감.

숲을 통과하는 길을 알려달라며 찾아온 아나킨을 외침을 무시하지

못한 것은 그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청년의 얼굴은 절박했고 곧 울음을 터트릴 것만 같았다. 아소카는 축이 좋은 편이었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성격 덕에, 숲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끝 또한 알고 있는 유일한 자였다. 아소카는 실제로 그것을 보았다. 눈이 내리는 마을, 그녀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도, 다음번에 갔을 때도 그 마을은 마치 저 혼자 고고하게 잠들어 있기라도 한 마냥 순백의 눈에 덮여있었다.

아소카는 눈의 여왕 이야기가 단지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정작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릴 수 없는 아나킨의 처지를 헤아린 것은 그 때문이었다.

“여기까지예요, 제가 갈 수 있는 길은.”

숲의 끝이 가까워진 모양인지, 몇 점의 눈송이가 바람에 실려 와 나풀거렸다. 아나킨은 제 말에 걸음을 멈췄고, 소녀는 마지막으로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숲의 나무처럼, 그의 머리 색은 아주 짙은 고동색이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푸른 눈동자는 예뻐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는 나무와도 같이 단단해 보이는 그의 마음에 선함이 깃들어 있음을 느꼈다. 아마도 그의 스승의 영향 때문일까, 악명 높은 악마의 종이라기에 청년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았다. 비록 그것이 깊은 공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고 해도, 선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소카는 믿었다. 아마도 그의 스승이 믿었을, 그의 본질에 잠들어 있는 선함을.

어쩌서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해야 하고 선한 사람은 영원히 선해야 할까. 변할 수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 슬픈 이야기가 아닌

가. 그렇기에 아소카는 간절히 바랐다. 그가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여왕의 성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불가능한 일들에 대하여.

“죽지 마세요. 반드시 살아남아요.”

- 살아남으렴.

따스한 미소, 다정한 어조, 그 목소리는 기억을 닮았다.

아나킨이 오비완으로부터 목숨을 구해지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마을을 덮친 어둠과 눈이 몇 번이고 몰려가고, 마을에는 뒤숭숭한 소문이 돌았지만, 아나킨은 웬지 모르게 오비완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심이 되었다. 그의 미소 때문일지도 모르고, 언제까지고 저를 지켜줄 것만 같은 단단한 얼굴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게 화근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지나치게 안심하고 있었다. 아나킨이 악마의 자식이라고 불렸던 것은 비단 세상을 일그러지게 보아서 뿐만이 아니라, 억누르려고 해도 그는 가끔 이성을 잃으면 이지를 뺏긴 짐승처럼 굴곤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아주 자란 이후에는 폭주하는 일도 잦아졌지만, 어렸을 적, 특히 그가 오비완에게 마음을 열기 전에는 그런 밤이 지나가고 난 후에 오비완의 온몸에는 제가 활꺾거나 물어뜯은 생채기가 가득했다. 그는 온몸을 로브를 항상 감싸고 다녔기에 다행히 그 마을에서는 들길 일이 없었지만, 그의 부모가 그를 버린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가끔은 짐승처럼 돌변해 그들을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뜩이나 가난하고 부양할 가족이 많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잘 숨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들킨 거지?’

창문에는 얼음으로 만든 꽃의 무늬가 새겨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눈의 여왕이 이 마을에 당도했음을 알리는 징조였다. ‘눈의 여왕은 눈 중에서 가장 크고, 땅에 내려앉지 않고 검은 구름 속으로 날아오른다. 그리고 몹시 추운 겨울밤에는 마을에 내려와, 저주받은 아이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간다.’라는 전설처럼, 창문 너머로 검은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 속에는 필시 눈의 여왕이 있을 터였다.

"오비완!"

밖에 어떻게, 어떻게 알고……. 자신의 비명소리에 놀라 달려온 오비완이 말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자신은 감정을 쏟아내기 급급했다. 손가락의 끝이 떨렸고, 숨이 가빠지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숨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비완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되찾은 삶인데, 잃고 싶지 않아요. 그는 악을 쓰다가, 그것이 그가 가진 첫 번째 미련임을 깨달았다. 그는 사실 그 흰 눈 속에 파묻힌 채로 죽고 싶지 않았다. 가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겠구나, 막연히 짐작은 했지만, 아마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나쁜 아이이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제가 다정한 말을 하지 못해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해서."

하지만 그런 아나킨을, 오비완은 두 팔을 벌려 안아주며 가볍게 두들긴다. 약동하는 심장처럼 느끼고 꾸준한 두근거림이 전해지자, 이상하

리만큼 안심이 된다. 그 품에서는 무엇이든 괜찮을 것만 같았다. 왜 나를 구했어요? 아나킨이 묻는다. 오비완은 그럼 죽게 내버려 두었어야 하니? 하며 실없이 웃는다. 창밖은 온통 어둡고, 새하얗게 서리가 끼가는데, 세상에 오로지 둘만 남은듯하다.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땀은 차가웠다. 그럼에도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은 두 손이 너무나도 따뜻해서, 놓고 싶지가 않았다. 강하게 염원하는 것. 아나킨은 그제야 자신이 죽고 싶지 않은 이유를 떠올렸다. 이전과는 다른, 확실한 삶의 이유. 자신은 이 사람과 함께 계속 살아가고 싶다. 그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며, 이 따뜻한 손을 오래도록 잡으며…….

'살아남으렴.'

하고, 오비완의 입꼬리가 둥근 호선을 그리며 휘어졌다. 곧 목 언저리로 강한 충격이 가해졌기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아나킨은 그의 목소리를 가까스로 들었다.

'살아남아서, 나를 구해주러 오고. 혹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아나킨이 기억하는 오비완의 마지막이었다. 다음날 눈을 뜨자 아나킨은 혼자였다. 둘이 함께 살던 벽돌집에는 깨진 유리창만이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오비완이 저를 대신해서 간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몰랐으나, 그는 유능한 협상가였으니 여왕과도 협상을 해내는 데에 성공한 것일지도 몰랐다. 비록 마지막 문장을 듣지 못하였으나,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말 따위를 했을 것이 뻔하여 아나킨은 문득 화가 났다. 내가 자신을 두고 행복하리라 생각하다니, 하여간 물려서. 물려

터져서는, 원하지도 않은 친절을 강요한다. 아나킨은 살고 싶었지만, 이런 결말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비완을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잡혀 들어갔을 것이었다.

아소카와 헤어진 이후, 해는 제법 떨어져 있었다. 그를 안내해주기라도 하듯 훑날리는 눈송이들이 한 곳을 향해 이끌렸으므로 그는 어렵지 않게 마을을 찾아갈 수 있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밤이 어두워졌기에, 아나킨은 어느 오두막집 앞에서 멈췄다. 다 쓰러져 가는 집이었다. 지붕이 내려앉아서 땅이 닿을 지경이었고, 문은 너무 낮아 기어서 들어가야 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노파를 만났다. 눈의 여왕의 성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는 아나킨에게 그 노파는 이렇게 말했다. 순록을 한 마리 내어줄 테니, 그것을 타고 북쪽 끝으로 달리렴. 그 아이가 너를 성 앞까지 데려가 줄 거야.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너 혼자 가야 한단다.

순록은 힘껏 달렸고, 마침내 도달한 성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북극광 때문에 환했다. 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가 옷을 뚫고 살을 에었다. 그러나 아나킨은 앞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궁전의 벽은 쏟아지는 눈으로 만들어졌고, 문과 창문은 살을 에는 바람으로 되어 있었다. 북도가 백 개나 되고, 가장 긴 북도는 수십 리도 넘을 만치 길었다. 북극광 때문에 북도는 환했다. 모든 것이 다 비슷해 보였다. 크고 텅 비고, 얼어 있고, 눈부시게 희었다. 마침 눈의 여왕은 막 다른 마을로 떠난 후였기에 궁전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감돌았다.

아나킨은 하염없이 걸었다. 걷다 보니 텅 빈 가운데 끝없이 내리는 눈이 바닥에서 얼어붙어 생긴 얼음 호수가 있었고, 오비완은 그 앞에 쓰러져있었다. 아나킨은 한달음에 그에게로 달려갔다. 궁전에 감도는 한기 때문일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느꼈다. 가까스로 도달해 품에 안아 올린 오비완은 가볍고, 또 몸이 얼음장 같았다. 잠든 얼굴은 너무나도 조용해, 순간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착각에 휩싸인다…….

오비완을 흔들고, 그가 눈을 뜨기까지의 순간이 너무나도 길었다. 아나킨은 끊임없이 아래로 추락하고, 또 추락하다가 저를 올려다보는 푸른 눈동자에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아나킨은 안도감보다 원망을 느꼈다.

“내가 구하러 오지 않으면 어찌려고 그랬어요?”

아니야, 당신을 힐난하고자 하던 게 아니다. 이 말부터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하지만 그의 가슴에 박혀있는 파편의 탓인지, 모진 말이 튀어 나간다.

“내가 오지 않았으면, 당신 같은 건 잊어버리고, 마을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갔다면.”

“...”

“여기서 혼자 춥고 외롭게 죽어갈 작정이었어요?”

오비완은 그를 원망하지도 않는 기색이었다. 늘 그것이 싫었기에, 입술이 바짝 마르는 기분에 아나킨은 그의 옷자락만 억세게 쥐었다.

“구하러 올 거라 믿었다. 이렇게 와주었잖니? 네가,”
“헛소리는 집어치워요!”

당신은 왜 매번 그렇게 무모하게. 혼자 남겨진 내 기분 따위는 안중에
에도 없었죠? 내가 당신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나
를 떠나갔을 때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오비완을 잃었다는 것을 실감한 아나킨의 마음이 떨렸을 리가 없
었다. 그가 큰 사고 없이 클 수 있었던 것은 오비완의 가르침 덕이었
기에, 그의 빈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는 한동안 모든 것을 우그러뜨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살아남으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탱해주던 목소리가 들려서.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구나, 나는. 불현듯 아나킨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다.
당신을 향한 기억은 꼭 눈송이와 같았다. 끝없이 높은 하늘에서부터,
하늘하늘 떨어져 내리는 눈송이들. 제 뺨에 닿으면 한없이 가볍고 덧
없으면서도, 어느새 제 어깨를 물들이곤 하는 눈의 무덤. 당신을 떠올
리면 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서, 눈을 감고 상상했다.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외면하고 미워한다고, 그래서 나
를 버리고 떠난 거라고. 그럴 리가 없지만, 한편으로 내가 미워져 떠
났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아나킨의 목소리는 반쯤 울먹이고 있었다.

미워요, 나를 버리고 간 당신이 미워,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자처해서 떠나버린 당신이 미워, 미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당신을 떠올릴때면 이렇게, 문득 애뜻해져 버려서…….”.

오비완의 손끝이 자신의 볼을 쓸었다. 뜨거운 것이 손가락을 스쳐 지나간 것과는 같았다. 온기, 아니면 어떤 것. 아나킨은 우는 법을 잊어버렸지만, 눈물이 흐른다면 꼭 그런 궤적을 남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은 기다렸구나. 이 외로운 곳에서, 혼자, 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며. 어쩌서 나를 믿어줬어요? 아나킨은 묻고 싶었다. 그걸로 괜찮았어요?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비완은 아나킨이 하지 못하는 말들을 들었다. 늘 그랬다. 제 몸에 일어나는 상처를 볼 때도 아이가 원망스럽기보다, 그 마음속에 품은 상처가 꼭 이리할까 싶어 마음이 안쓰러웠다. 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모진 말과 달리, 언제나 그 두 눈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나왔으니까. 사람을 미워하기에는,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이였기 때문에. 아나킨이 가지고 있는 선함을 오비완은 믿었다. 하지만 그건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시야가 느리게 밝아졌다. 그가 완전히 자란 모습을 보면 떠날 생각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저를 걱정스레 내려다보는 저 얼굴이 소중한데 버렸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와 함께하는 일상을, 너와 함께 맞는 아침을 자신이 사랑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비완은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릴 수 있었어.”

“...”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가 미우냐?”

아나킨은 반쯤 낮이 나간 얼굴로, 마치 울다가 웃는 것처럼 이상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미운 것이 아니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 그와 함께 있더라도 늘 불안했다. 그 겨울에서부터, 자신이 간절히 바라왔던 것은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는 일이었지만, 결국 그 것을 놓쳐버린 것도 자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를 한번도 원망한 적이 없단다.”

오비완은 어느새 장성한 제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살아가며, 그들은 몇 번이고 서로의 손을 놓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비완은 그 손을 몇 번이고 내밀고, 다시 잡아줄 생각이었다.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바램과도 같은 말을 읊으며, 마침내 두 손이 맞물렸다.

“돌아가자꾸나, 집으로.”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따스하다. 서툴게 더듬은 입술, 반쯤 젖은 머리카락, 장난스럽게 부딪히다 떨어지는 숨결. 그런 것들이 주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감각은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그의 마음에 박혀 있던 겨울 파편을 녹였다.

아나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순간, 바람이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멀리서부터, 아침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엇갈리지 않은 마음을 축복이라도 하듯 아름답고 화창한 한낮의 빛이. 환하게 쏟아지는 빛무리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

다 웃었다. 마치 이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처럼.